

간경변 환자에서의 Ranitidine의 약동학변화 연구

보라매병원 내과 : 이 동 호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실 : 임동석 · 장인진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 윤 세 진

연구배경 : 간경변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궤양의 치료제로 쓰이는 H₂-차단제들은 정상인에서보다 특히 간경변환자에 투여시 중추신경계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 약동학적 성상의 변화에 의한 체내 ranitidine 증가로 인한 것인지 또는 이와는 무관한 약력학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이를 위하여 간경변환자 12명과 대조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하여 ranitidine 150mg을 경구투여한 후 약동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1회 경구투여 후 15분, 30분, 1시간, 2,4, 6, 8, 12시간에 채혈, 채뇨하여 ranitidine 농도를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 과 : 간경변 환자에서의 ranitidine의 AUC는 $3173 \pm 1141 \text{ ng/ml} \cdot \text{hr}$ 로 대조군에 비해 1.6배 높았으며 청소율은 47.99 ± 20.67 로 35% 감소하였다.

결 론 : 이러한 약동학적 특성의 차이는 간경변 환자에서 흡수과정의 초회통과효과 감소로 인한 생체이용률의 증가와 청소율의 감소로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간질환 환자에서 더 흔히 보이는 ranitidine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에는 간기능 저하에 따른 ranitidine 약동학의 변화가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